|  |  |
| --- | --- |
| **쌍용자동차-2** | **보 도 자 료** |
| 2013년 8월 12일(월) |

|  |
| --- |
| 쌍용차, 2분기 흑자전환 실현 등 상반기 경영실적 대폭 개선 |
| **▪ 상반기 판매 및 매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2007년 이후 최대 … 2분기는 26% 증가**  **▪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2분기 흑자전환 실현, 상반기 영업 손실 규모 70.5% 감소**  **▪ 조립 3라인 2교대 전환, 임금협상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등 경영정상화 순조롭게 진행** |
| 마힌드라 그룹의 일원인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가 지난 상반기 내수 29,286대, 수출 40,174대(CKD 포함)를 포함 총 69,460대를 판매해 매출 1조 6,606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상반기 영업손실(△143억)이 전년 동기(△486억)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자동차의 금년 상반기 판매대수 및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2%이상 증가하며 지난 2007년 상반기 판매(69,755대)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05년 4분기(41,293대) 이후 분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2분기 판매 상승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2.6%)한 상황에서도 새롭게 출시된 「코란도 투리스모」와 함께 코란도 Family Brand의 판매증가로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내며 내수시장에서 34%가 넘는 최대 성장률을 달성 했다.  수출 역시 러시아, 중남미 지역 및 인도 현지 판매물량 확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분기의 경우, 쌍용자동차는 「코란도 투리스모」의 성공적인 출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1만 2천대 이상을 기록하며 38,195대를 판매했다.  이러한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또한 지난 2분기 흑자(62억) 전환 하면서 전년 동기(△215억) 대비 손익 구조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는 기업회생절차 중 유휴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 처분 이익(1,125억)으로 흑자를 실현했던 2010년 3분기를 제외할 경우 2007년 3분기 이후 6년여 만에 분기 흑자 전환을 실현한 것이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지난 5월부터 조립 3라인의 2교대 체제 전환을 통해 SUV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5일 임금협상을 4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마무리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총력 생산에 돌입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통한 경영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제품 개선 모델의 판매 증가와 함께 마힌드라와의 시너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 2분기 흑자를 실현했다”며 “하반기에도 「뉴 코란도 C」 등 상품성 개선 모델을 통해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수익성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